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꿈꾸는 생태건축

대안건축으로서 사회적 관심 높아져...
자연생태계와 인간생태의 조화 모색해

이윤하 | 시인 · 건축가

최근 들어 생태건축 입장에서 공동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삶을 꾸려나가는 생활무대인 건축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운동이다. 생태건축이 대안건축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연착취를 통해 취득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미래적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생태(Ecology) 또는 생태적(Ecological)이란 말은 늘상 주변에서 부유하는 말이지만 구체적 삶 속에 끌어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일상의 벡터(Vector)가 세속적 문명에 편향돼 있을 뿐 아니라 제어되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인간 중심으로 길들여진 탓일 것이다.

새들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꿀벌과 개미 공동체는 본능적인 공동성으로 그들만의 도시를 구축하지만, 그저 외부의 적으로부터 종속을 보호하는 쉼터(Shelter) 구실을 할 뿐 문화로서 건축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 인간의 창작행위와는 의미가 다른 일차적 생존수단으로서 답습적 건축행위일 것인데, 문명 속의 인간이 다시 생태적 관점으로 그들의 살림살이를 경의심으로 읽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개발적 대안을 찾아

최근 들어 생태건축에 의한 마을 만들기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연구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구조 방식에서 설비 및 채처리시설까지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개발적 대안을 찾아가자는 의지다. 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주 생활무대인 건축환경을 자연환경과의 소통체계로 구축해 인위적 생태계와 자연적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임을 엿볼 수 있다.

환경공생적 생태건축의 일반적 정의는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의 면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해 거주자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및 그 지역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대안 건축의 일반적 목표는 건축물 시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자연의 순환체계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며, 주거지 주변에 다양한 종의 동물과 식물을 서식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건축물을 주위 경관과 어우러지게 배치해 건강한 주거생활과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생태건축은 앞으로 주거를 중심으로 한 마을 건축, 인텔리전트 빌딩, 지중건축물, 에너지절약형 건축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혀갈 것이다. 생태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 자연재료를 이용한 건축소재와 전통적 시공방법을 현대기술에 접목시키려는 시도, 건축 공급처리시스템을 자연 순환체계를 닮은 인공순환 체계로 재편성하려는 시도, 건축 내외부 공간구성 및 건축과정에 사회 생태학적 개념을 적용하려는 움직임 등이다.

생태건축은, 자연과 건축이 서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맺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집중형 지배어휘로서 거대도시, 도시화

구조를 다방향성이 인정되는 다원주의 구조로 재구축해야 한다. 인간과 자본, 권력과 탐욕의 집중화가 빚어낸 인간 중심주의적 도시화 개념은 탈중심적 다핵구조의 언어 개념으로 시스템을 전환해 유기적 관계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와 풍토성에 대한 주체적 독자성은 국제주의 이념과는 구별돼야 한다. 풍토에 맞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생태가 다양성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독자적 환경 속에서 꾸려진 인문적 생태성도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풍토주의 생태건축이 그 내재된 아이덴티티를 획득할 수 있다.

생태건축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그리고 자연 착취를 통해 취득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 논리는 미래 가치로 평가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구조적 재편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동 위협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가치 창출과 공동선의 가치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성의 건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미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개발하는 대안건축으로 생태건축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도시'와 '건축'이라는, 고유하고 거대한 살림살이의 장에 '생태'란 접두어가 덧붙여진 합성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와 건축의 의미 속에 환경윤리와 생태철학이 함의된 개념으로 창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회환경과 건축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댈 때다.●